

## 임진조국전쟁시기에 창작된 권필의 시작품에 대한 분석

장성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학과 예술에는 일정한 시대의 사회제도와 사람들의 생활과 풍습이 반영됩니다.》

(《김정일선집》 증보판 제3권 292페이지)

권필(1569-1612, 자는 여장, 호는 석주)은 중세시기에 활동한 재능있는 시인이였다.

권필은 평소에 정철, 성혼, 고경명 등 시문이 뛰어났던 인물들의 영향을 받아 많은 시작품들을 창작하였다. 그는 학문과 시창작으로 명망이 높았지만 16세기 말엽에 량반통치배들의 당쟁을 목격하면서 점차 봉건사회에 대한 환멸을 느끼고 벼슬길에 나서기를 단념하였다. 그는 벼슬살이도 하지 않은데다가 그리 넉넉치 못한 량반가정의 다섯째로서 상속받은 땅도 별로 없었기때문에 늘 가난에 쪼들렸다.

그러나 그는 당대의 이름있는 학자, 문인들과 친교를 맺고 시창작에 전심하였으며 이 과정에 창작적기량도 넓히였고 당대 현실에 대한 비판적태도를 더욱 굳히였다.

임진조국전쟁시기에 남긴 권필의 시작품들에는 그의 애국심과 현실에 대한 비판적태도가 반영되어있다.

전쟁이 일어나자 민족적울분을 안고 왜적을 물리치는 싸움에 참가하기도 하고 피난길에 오르기도 한 그는 가는 곳마다에서 끓어번지는 인민들의 애국의 열정과 멸적의 기개, 전쟁으로 인한 인민들의 고통과 그에 대한 깊은 동정,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마음을 쓰며 모대기는 안타까운 심정을 깊은 서정으로 노래한 작품들을 적지 않게 남기였다.

임진조국전쟁시기에 창작된 권필의 시작품에서 주목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시련을 겪는 나라의 운명을 두고 걱정하는 시인의 안타까운 심정과 애국적인민들의 원쑤격멸의 기개를 노래한 작품들이다.

《말우에서 읊노라》, 《적이 물러간 뒤 한성에 들어 가면서》, 《북우당 김구용을 회고하여》 등은 그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나라는 간고한 때를 당했건만  
조정엔 감당할 인재없어라  
령남에 전투 아직 끝나지 않았고  
관북백성들 안정될 날 멀었거니  
애달픈 이 생각 참지 못하며  
머나먼 길을 달려가노라  
소리높여 출사표를 읊으니  
뜨거운 눈물이 옷자락을 적시네

(시 《말우에서 읊노라》)

작품은 왜적이 불의에 침입하여 함경도에까지 기여들자 조국수호의 항전에 떨쳐나선 애

국적인민들의 멸적의 기세를 잘 반영하고있다.

작품에서는 간고한 시련을 겪는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면서 침략자들에 대한 적개심을 안고 원수를 물리치는 싸움에 용약 떨쳐나서 한몸바치려는 서정적주인공의 애국적감정이 뜨겁게 노래되고있다.

시 《적이 물러간 뒤 한성에 들어 가면서》는 간악한 원수를 몰아내고 폐허로 된 한성으로 들어서서는 시인의 비분강개한 심정을 반영한 작품이다.

작품에서는 왜적의 더러운 발굽에 짓밟혀 산천이 피로 물들고 수백년 옛 궁궐이 쑥대밭으로 된 고향—한성의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고향을 폐허로 만든 원수들에 대한 불타는 증오와 조국의 남쪽에서 왜적을 다 몰아내지 못한 절통한 심정을 토로하고있다.

조국이 겪는 재난에 대한 비분강개한 마음이 있었기에 권필은 김구용과 함께 임진조국전쟁이 일어나자 한갓 이름없는 선비의 몸으로 전쟁이 일어날수 있다는것을 알면서도 수수방관한 재상들인 리산해, 류성룡 등의 목을 베라고 왕에게 글을 올리기도 하였다.

이것을 회고하여 지은 작품이 시 《록우당 김구용을 회고하여》(5언 92구)이다.

작품에는 간신들을 처단할것을 상소하던 일과 함께 뜻을 같이하였던 친근한 벗에 대한 그리움이 진실하게 반영되어있다.

종묘사직에 대해 얘기할 때마다  
 눈물이 샘처럼湧솟음쳤지  
 겹구름이 태양을 속여  
 간사한 이들 저마다 총애를 자랑하니  
 세상일 날로 더럽혀지고  
 세태 더욱 번잡해졌네

작품에는 간신들이 임금을 속여 정권을 장악하고 나라의 정사를 어지럽히는 현실을 목격하면서 나라의 장래에 대한 근심으로 눈물을 금할수 없어하는 서정적주인공의 안타까운 심리가 그대로 반영되어있다.

시의 다음부분에서는 통치배들의 당파싸움으로 국력이 약화된 틈을 타서 왜적이 침입했을 때의 처참한 정경과 김구용의 장한 기개를 찬양하고있다.

왜구가 느닷없이 쳐들어와  
 백성들 모두 만신창이 되고  
 병란의 먼지 도성까지 침범하여  
 무기가 한성에 가득하더니  
 궁궐 담장 무너져내리고  
 적의 화염이 기둥까지 태웠네  
 오랑캐 막으려던 한의 위엄꺾여  
 축 땅으로 옮기던 당나라의 자취더듬으니  
 나라에 보은하려던 평소의 마음엔  
 누에 실 뽑듯 근심만 생겨나네

그대와 함께 결문에서 부르짖을 때  
생명을 숨털보다 가볍게 여겼지

전쟁으로 하여 수도마저 함락당하고 궁궐도 불타버려 재가 되었다. 방어기회를 놓친 조정에서는 당나라 현종이 안사의란을 피해 촉 땅으로 도망했던 것처럼 수도를 떠나 평양으로 향했다. 그 소식을 듣고 권필과 김구용은 제일 처음 파천을 주장한 명의정 리산해와 전쟁전야의 일본의 움직임을 파악하고서도 알리지 말자고 주장했던 류성룡을 양귀비의 사촌오래비인 양국충과 진희와 같은 간신에 비유하면서 목을 벨것을 상소하였다.

작품에는 목숨을 버릴 각오를 안고 벼슬도 없는 한갓 선비의 신분으로 임금에게 재상의 목을 베자는 글을 올린 김구용과 서정적주인공의 기개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작품의 서정은 뜻을 같이 하였던 옛 친구, 전쟁으로 하여 행방을 모르는 벗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전쟁의 국면에 대한 모대김으로 승화된다.

리별한지 얼마이던가  
도적은 여전히 제멋대로 날뛰어  
고을과 수도가 나날이 병들어가는데  
군수물자 통로마저 끊겼으니  
수척해지도록 이리저리 궁리해봤으나  
이곳까지 닥치니 두렵고 무서워지네

작품에서 서정적주인공은 전란이 평정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국토가 날을 따라 왜적에게 점령당하는 현실을 놓고 몸이 수척해지도록 계책을 생각해 보지만 전쟁의 형세를 호전시킬만한 묘안은 떠오르지 않는다. 이러한 번민으로 하여 서정적주인공은 모든 일에서 자신심과 의욕을 잃게 된다.

이것은 시의 뒤부분에서 《오직 문필을 버리고/ 남쪽이랑의 우거진 잡초나 다스리며/ 세금내어 판가 받들면서/ 조심조심 선산이나 지켜》가려는 지향에서 그대로 표현된다.

임진조국전쟁시기에 창작된 권필의 시문학에서 주목되는 것은 다음으로 전쟁에 시달리는 인민들의 참혹한 불행에 대한 동정과 부패무능한 통치배들에 대한 증오심을 반영한 작품들이다.

그의 작품들에는 임진조국전쟁시기 인민들이 겪는 고통과 불행에 대한 깊은 동정과 그것을 가셔줄수 없는 안타까운 심정이 절절하게 반영되어 있으며 이것은 부패무능한 통치배들에 대한 증오로 이어진다.

실례로 《회포를 적어 차오산에게》, 《차오산에게》를 들 수 있다.

시 《회포를 적어 차오산에게》(3수)의 두번째 시에는 전시의 어려운 환경에서도 끊임없이 감행되는 지방관청의 수탈에 대한 증오와 인민들이 당하는 고통에 대한 깊은 동정이 반영되어 있다.

시월이라 외딴 마을 벌써 타작도 끝났을 때인데  
시절이 위태로우니 인사가 바쁘기만 하구나

한밤중에 세금 독촉하는 이 고을의 아전  
어디선가 만리 먼곳으로 창을 메고 온 사내  
전쟁격문 서로 치닫느라 먼지 자욱하고  
곡성은 치솟아오르는데 하늘은 푸르기만 하구나  
과부와 도적들이 바로 이와 같으니  
슬피 남쪽하늘 바라봄에 오장이 꺾이는듯

작품에는 전쟁을 겪는 나라의 형편이 생동하게 반영되어있다.

이전같으면 추수와 타작을 마치고 한가로울 10월이지만 전쟁시기인것으로 하여 주고받는 인사마저 불안하고 급하다. 남자들은 창을 메고 싸움에 나서야 했고 혼잡한 전투속에서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친척친우를 잃은 사람들의 비통한 곡성은 하늘에 닿았다. 그러나 그러한 속에서도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고을의 아전들은 세금독촉에 미쳐날뛰다. 두고 온 고향 한성을 바라보면 애가 끊으며 마음만 아프다.

작품에서는 세금독촉에 못견디어 《도적》이 되고 남편을 잃어 과부가 된 녀인들이 울음을 터뜨리는 스산한 정경을 목격하는 서정적주인공의 애달픈 심정이 반영되어있다.

시 《차오산에게》는 전쟁의 7년세월 인민들이 고통을 강요당하는데 대한 가슴아픈 심정을 토로하면서 난국을 타개할수 없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판이 반영된 작품이다.

시 《병서를 읽고 느낀바 있어》는 전쟁을 종식시킬수 있는 묘안은 있으나 자기의 뜻을 실현할수 없는 모대김과 번민이 반영된 작품이다.

권필의 시작품들에 반영되어있는 현실과 포부와의 모순은 난국을 타개할만 한 인재가 없는데 대한 가슴아픈 통탄으로 이어진다.

그의 시작품들에는 벼슬이 없는 선비의 신분인것으로 하여 조국과 민족을 위한 길에 자기의 재능을 바칠수 없는 심각한 모대김과 번민, 무맥하고 허무한 인생에 대한 비판이 반영되어있다.

임진조국전쟁시기에 창작된 권필의 시작품들은 당시 전쟁시기 도처에서 적을 물리치며 승승장구하던 인민들의 멸적의 기세와 애국의 신념을 예술적으로 일반화하지 못하고 리상과 현실의 불일치에서 오는 허무감과 고독감이 짙으며 봉건적충군사상에 기초한 제한성을 가지고있다.

그러나 권필의 시작품은 당시 인민들의 생활과 부패무능한 봉건통치배들의 우매하고도 탐욕적인 생활을 생동하게 반영한것으로 하여 의의를 가진다.

(필자는 중국류학생임)